

인기 텀블러 스탠리 '납 함유' 논란



▲ 캘리포니아주의 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스탠리 텀블러. 사진=뉴스1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텀블러 브랜드 '스탠리' (Stanley)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납 검사 키트로 스탠리 텀블러를 테스트한 결과 납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납과 접촉하면 색이 변하는 용액에 면봉을 적신 후 이 면봉으로 텀블러 내부 바닥 등 곳곳을 문지르면 면봉 색이 변한다는 것이다.

납은 중금속 중에서도 독성이 있는 물질로 체내 흡수되면 다른 중금속보다 배출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몸속에 과잉 축적될 경우 신경계 장애와 빈혈, 변비, 복통을 유발하고 소아기에는 성장을 방해하거나 과잉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접한 스탠리 측은 텀블러 바닥을 밀봉하는 재료로 납이 일부 사용됐다면서도 이 납이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텀블러가 파손되거나 극단적인 열에 노출되거나 제품 의도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밀폐재로 쓰인 납이 노출될 일은 없다는 게 스탠리 측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에서 판매된 '티블루 스테인리스 스틸 어린이 컵' 등 텀블러 제품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임대료 급등해 노숙인 수 증가”

급등하는 임대료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9일 '뉴스1'에 따르면 하버드대 주택 공동 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3년 1월에 약 65만3000명이 노숙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2015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연구진은 “높은 임대료와 구제책 부재가 노숙인 급증의 원인”이라며 “팬데믹 초기에는 임차인 보호, 소득 지원,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이 중 상당수는 2022년 종료됐다. 그 결과 노숙인 수가 1년 만에 7만1000명 가까이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의 인구 조사 및 부동산 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미국 전체 가구의 절반이 월급의 30%~50%를 임대료로 사용, ‘비용 부담’을 느꼈다. 또 연 소득이 4만5000달러~7만4999달러인 사람들이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은 급여의 약 41%를 임대료로 지출한다.

부동산 마켓플레이스 렌트(Rent.com)에 따르면 지난



▲ LA 샌페드로길의 노숙인 텐트들. 사진=AP

해 12월 미국 월 임대료의 중간값은 1964달러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23% 증가했다.

하버드대 보고서는 팬데믹 초기 시절 발생했던 임금 손실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히 상승한 임대료는 주거 안전망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조용한 퇴사’ 증가... 생산성 손실 1조 9천억 달러

미국에서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실제 일을 그만두진 않지만, 맡은 업무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행위) 증가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1조9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갤럽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서 참여한 미국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33%가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다는 응답은 50%로 늘었고, 나머지 16%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한다고 응답했다.

갤럽은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두 부류 응답자의 생산성 손실을 달러 가치로 환산한 뒤 전체 노동인구에 대



▲ 미국 근로자의 조용한 퇴사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입했다. 지난해 미국의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는 총 1억6천만명이었다.

그렇더니 미국 기업들이 입은 생산성 손실은 1조9천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총 피해액은 8조8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절반이 넘는 미국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사직과 이직이 빈번했던 코로나19사태 여파로 풀이된다.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 중 29%가 원격 근무만 하고 있다고, 52%는 사무실과 집을 오가며 일하는 ‘혼합 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 시간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수요일 오전 10시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목요일 오전 10시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ACCOUNTING | TAX | CONSULTING |
|---------------------------------------|--|---|
|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